맹인과 이상한 쓰레기

(마23:16-22)

16. ○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7.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0.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21.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22.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맹인과 이상한 쓰레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맹인과 이상한 쓰레기'
맹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뜻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상한 쓰레기',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이상한 쓰레기는 또 뭐냐?

2000년도에 만들어진 토요다 자동차인 캠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었으면 이제는 13년째가 되지요, 그런데 작년 초에 그 차를 팔았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 차가 11년 동안 한 번도 고장이 안 났었거든요.
그 차를 팔고 났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아릴 정도로 헐값에 팔았어요.
토요다 자동차가 저희가 밴쿠버에서 갖고 들어올 때만 해도 수입차 시장이 그다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인 부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엔진오일 필터라든지 윈도우 닦는 와이퍼라든지 그런 필요한 소모품들을 가지고 와서 다 써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미국에 계신 지인에게 부탁해서 부품을 좀 더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품들만 있으면 다른 고장이 없기 때문에 몇 년을 더 충분히 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곳에 놔두었다가 잊어버리고 차를 팔고 난 다음에 남은 부품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소모품이지만 새 부품들이죠.
여러분, 쓰레기가 뭡니까?
쓸모가 없는 게 쓰레기예요, 어디 쓸 용도가 발견될 수 없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쓸 애기, 쓸어버릴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 쓰레기는 용도가 없어서 쓰레기인 것은 맞는데, 차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지만, 마찬가지로 버릴 수도 없어요.
새 부품들을 어디다 버립니까?
멀쩡하게 새 부품이고, 미국에서 바다 건너 온 거지만 캠리라는 자동차가 없으면, 또 캠리 중에서도 2000년도에 생산된 그 캠리가 아니면 안 되니까.
자동차가 없고 나니까 멀쩡한 부품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이상한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맹인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맹인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본문에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 맹인이라고 그러셨을까?
이 말씀의 단서는 주님께서 이들의 외식을 뭐라고 또 꼬집어서 그 증거를 대시는가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금을 바쳤던 것 같아요, 성전의 장식을 위해서도 금이 필요했고 또 성전유지를 위한 헌물로도 금이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데, 유대사회에서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것들을 들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맹세라는 게 나의 결심과 다짐이 확고하다는 것을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근거로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두고 맹세한다, 이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선민의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는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것들을 들어서 맹세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성전에 있는 금을 들어서 맹세를 하기도 했던가 봐요.
왜냐하면 그게 거룩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성전에 바쳐진 금이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통용되는 금과는 다른 이유가 하나님께 구분되어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들어서 맹세를 하기도 하고,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겠다,'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변하게 됩니다.
성전을 두고도 맹세하고, 성전의 금을 두고도 맹세를 합니다.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한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또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한테서 이상한 논리가 나온 거예요.
어떤 논리인가 하면, '성전을 두고 맹세하고 나서는 안 지키더라도 그걸 누가 문제 삼겠느냐, 그러나 성전에 바쳐진 금을 두고 맹세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바쳐진 금이 세상의 금과는 다르게 거룩하다는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전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금을 거룩한 금으로 만드는 것이 성전인데, 성전을 두고 맹세할 때는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한 경우에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을 드리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더 먼저 있고, 더 소중한 거지요.
아무데나 두어도 예물이 귀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단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제단에 바쳐질 예물이 제단 때문에 거룩

해졌으니까 그 예물을 두고 맹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상관없지만, 제단에 바쳐진 예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 다시 말해서 마음의 비중이 금과 예물 쪽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순서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가까울수록 중요하다, 금 예물, 예물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곡식, 이런 것들, 몸에 가까울수록 중요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것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에서의 맹인이 될 경우에 우리 주변의 모든 물건이 다 이상한 쓰레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에서의 맹인이 도대체 어떤 맹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맹인일까요?
여러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바로 그런 거죠.
자동차부품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없으니까 부품이 이상한 쓰레기로 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이 없으면 성전에 바쳐진 금의 거룩성이라는 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금을 두고 맹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맹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왜 맹인인가를 알려면 다시 한 번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참으로 예수님은 아인슈타인의 선배이십니다.
2천 년 전에 이미 상대성이론을 얘기하신 건데, 왜 맹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인슈타인의 얘기와 맞물려 가느냐 하면,
여러분, 아인슈타인 이전까지 200년을 지배해온 것이 기계적 세계관입니다.
이 기계적 세계관의 모든 중추적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뉴턴이었어요.
그런데 뉴턴까지도 빛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물론 뉴턴이 보이지 않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무지갯빛의 가시광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색깔이론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아이슈타인 이전까지 물리학자들이 관계했던 대상은 빛 때문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였지, 그 모든 삼라만상을 보이게 하는 빛 자체에 관심을 가진 물리학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전기제품을 파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빛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아인슈타인 이전까지는 다른 물리학자들은 빛 때문에 보여 지는 이 세계를 문제 삼는데,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보이게 하고, 이 세상 만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빛 자체를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 거예요.
16세 때 아인슈타인이 상상했던 내용이 소개된 책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늘로 날아오른다, 드넓은 우주공간이 나타난다, 저기 빛이 보인다.
그 달려가는 빛을 따라간다, 속도를 점점 높인다, 빛과의 거리가 좁혀진다.
빛의 속도가 되어서 빛을 따라잡았다.
마침내 나와 빛의 속도가 같아졌을 때, 그 순간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소개 된 것 중에 또 하나의 상상이 있는데 어떤 상상인가 하면요,
<무한히 넓은 사방이 막힌 깜깜한 공간 안에 내가 손거울을 들고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 빛이 달려 들어온다.
그 빛의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손거울을 들고 쫓아간다.
막 달리고 달려서 빛의 속도로 달리게 되었을 때, 손거울을 딱 봤더니 어? 내 얼굴이 거울에서 사라져버렸다>
빛의 속도로 달리니까 내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물리학적 언어로 표현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아버지, 빛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아버지가 빛 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빛을 올라탄다는 것이에요.
빛의 속도로 마음이 달려간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맹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전에 바쳐진 금이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맹세할 때 그걸 근거로 제시합니다.
맹세가 주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맹세란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성전 금의 거룩함의 의미는 성전 자체가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제단에 바쳐지는 예물이 거룩해서 맹세할 때 그것이 근거로 제시되는 이유, 그 거룩함의 의미는 제단이 부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놓고 성전 금을 더 중요시하고 예물을 더 중요시하는 이 자들을 소경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이천년 전에 하신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본 게 뭐였습니까?
빛이 있어서 내 눈앞에 자식이 보이고 내 눈앞에 부모님이 보여요, 배우자가 보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빛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고 한다면 마음에 의미로 전달될 물건이 없고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서 보여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빛 때문에 보이는 것에 중요성의 가치를 두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어요, 마음으로.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 삼라만상을 보이게 하는 빛 자체를 중요시 여겼고, 그 빛을 마음에 가장 귀중한 가치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있게 된 것들에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삼라만상, 내 눈앞에 보이는 자식이 자식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있게 하셨기 때문인데, 그 있게 하신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고 못 보고, 자식을 자식으로 내게 비쳐지게 하는 빛 되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자식에게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못 보니까 맹인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 우리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내 사업, 내 인생,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것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전의 금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성전 때문인 것처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 때문에 의미가 있게 되었고 존재하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분으로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맹인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아인슈타인 이전 사람들처럼, 심지어는 뉴턴까지도…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보이는 현상에 집중을 합니다만, 아인슈타인은 보이게 하는 원인인 빛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왜 관심을 못 갖느냐 이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지요.
<손거울을 들고 있을 때 빛의 속도로 달리게 되면 내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마음으로 태양빛을 봅니까?
보통 때는 태양빛 때문에 보이는 물건만 봐요, 어떨 때 태양빛 자체를 봅니까?
짙은 먹구름이 별과 달까지 가린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함이 뒤덮인 곳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비로소 태양빛을 봅니다.
태양빛을 그리워하고 필요로 하고, 태양빛의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태양빛이 비치고 있을 때는 그 빛이 비추는 물건만 보고 열 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자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빛에 대해서 맹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깜깜해야 마음으로 태양빛을 봅니다, 태양빛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는 한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둬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내 눈 앞에 보이는 내 마음이 대상으로 삼고 내 마음이 좋아해서 가려고 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마음에 깜깜함을 주는 사건이 십자가사건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 깜깜해져야 그 모든 것들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식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때문에 자식이 있게 된 건데, 자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을 못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식 앞에서 십자가를 보고 자식에 대해 깜깜해집니다.
자식에 대해 깜깜해질 때 자식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업을 볼 때 우리는 사업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면서 십자가를 먼저 기억을 합니다.
이럴 때 사업에 대해 죽게 되고, 사업에 대해서 깜깜할 때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있게 되고 내 눈앞에 보이게 되는 사업 자체에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알려지지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있게 되는 사업에 대해서 내가 깜깜한 암흑이 돼버려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올라타는 거예요.
주님을 올라타게 되면 빛의 속도로 달릴 때 손거울에 내가 안 보이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하게 되면 이 세상 것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우리는 빛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 아닙니까?
빛의 속도로 달리면서 거울을 보면, 빛의 속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러다가 도달하고 나면 내 모습이 안 보이게 될 거다,
이게 열여섯 살에 한 상상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천재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지요.

빛 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연합합니다.
빛을 올라타는 길이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만 올라탈 수 있습니다.
올라타게 되면 나와 나와 관련된 모든 게 안 보이고, 갑자기 나타나는 게 하늘의 빛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스테반이 그런 거예요, 돌로 찍는 사람도 안 보이고, 돌에 맞아 죽는 자기 모습도 안 보이고, 하늘만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 눈앞에 있게 되고 존재하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뜻에 나한테 알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붙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사업에 대한 하나님 뜻이 안 알려집니다.
완전히 사업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던 마음이 사업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 깜깜하게 죽을 때, 그 사업을 있게 하시고 그 사업을 내게 보이게 하신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도달했을 때 그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이상한 쓰레기가 안 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맹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있게 하신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과 모든 대상,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은 다 이상한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왜? 참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 부품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동차가 없을 때 버릴 수도 쓸 수도 없는 이상한 쓰레기가 되는 것처럼 내 앞의 자식, 배우자, 부모, 인생, 내 인생의 사건들 그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을 마음이 못 볼 때에 이상한 쓰레기로 변해버리고 용도를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상한 곳에 갖다 찍어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과 이상한 쓰레기, 빛을 못 보는 맹인이 될 때 빛 때문에 보이는 것만 집착을 하게 돼서 앞 못 보는 맹인이 될 때, 내 주변의 모든 은혜로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용도와는 비껴가는 이상한 쓰레기로 전락해버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빛 되신 주님과 연합함을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해 맹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대해 밝은 눈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해 맹인이 됨으로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이 이상한 쓰레기가 되는 그러한 불행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